2016년 6월 22일 목포 2016 – 27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6월 23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배포시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한국은행 목포본부 지역경제 세미나(전남 중소조선 지속발전 전략) 주요 내용**

□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김한중)는 목포대 중형조선RIC, 중소조선연구원 서남권본부와 공동으로 6.22일(수) 14:00, 대불산단 소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전남 중소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

o 최근 **선박발주 물량 감소, 중국·일본 조선업체와의 경쟁이 심화** 등으로 조선업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전남 중소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통한 지속발전 전략**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

"주요 내용은 붙임 참조"

<관련 사진은 별도 송부>

문의처 : 한국은행 목포본부 과장 김창록, 과장 윤여진

Tel : (061)241- 1123, 1122 Fax : (061)242- 1189 E-mail : mokpo@bok.or.kr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mokpo)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THE BANK OF KOREA

<붙임>

2016년도 지역경제세미나 주요 내용

Ⅰ. 최근 국내외 조선산업 동향 및 전망(목포대 박종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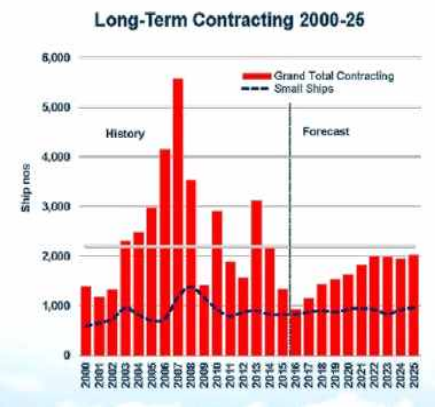
□ Clarkson Research는 글로벌 불경기로 인한 물동량 감소, 유가하락에 따른 해양 플랜트 시장 동결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세계 조선산업이 2018년 이후에나 차츰 회복될 것으로 전망

한편, 세계 조선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형선박 분야는 견조한 성장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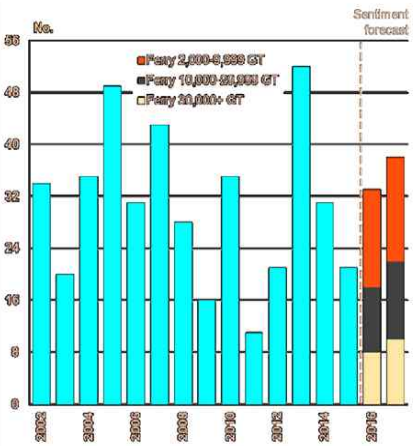
o 카훼리선(roll-on/off-passenger)의 경우, 용선료가 상승하고 있으며 차량운반선(pure car carrier)의 경우, 견조한 중고선가가 신조선가를 지지하고 있음

o 소형선박은 일반화물선의 경우 2016년 이후, 견인선의 경우 2022년 이후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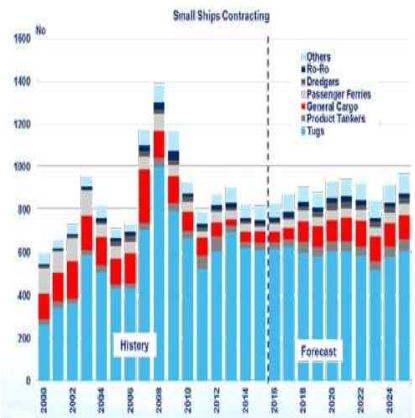
전세계 선박 발주량 전망



훼리선 발주량 전망



소형선박 발주량 전망



자료: Clarksons

Ⅱ.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양종서 선임연구원)

□ 일본은 2014~2015년 기간중 중국이 우위를 보였던 벌크선 시장과 한국이 주도했던 중형탱커 분야에서의 우위를 보였는바 이는 엔저에 의한 가격경쟁력과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전략 실패 등에 기인

o 다만, 2015년 4분기 이후 수주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선박건조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

□ 중국은 초대형 선박을 제외한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까지 우위를 보이며 성장중

o 한편, 중국정부는 자국 조선사 white list에 71개사만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조선업체 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리스트에 포함된 71개사의 경우 금융을 포함한 총력 지원이 전망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전남 중형조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o 글로벌 선박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한 개조시장(retrofit) 참여로 단기적 수익성 확보

o 불황기에 대비한 순이익 적립으로 중장기적 재무 안정화 도모

o 중형조선사간 조합 설립 및 정부 주도의 선형 개발, 요소기술 개발, 공정자동화 등의 연구개발 지원

o 설계비용 최소화, 기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o 영업조직 구비 및 프리미엄 제품 전략 추구 등

Ⅲ. 레저선박 중심의 전남 중소조선산업 사업 다각화 방안

(중소조선연구원 손창련 서남권본부장)

□ 2013년 국내 레저선박 및 부품기자재 시장은 각각 470억원, 115억원 규모로 연평균(2011~2013년) 24.09%, 55.25% 등으로 크게 성장

o 글로벌 레저선박 시장은 연평균(2006~2014년) 7%씩 감소하였으나 수퍼요트 발주량은 348척(2005년)에서 411척(2014년)으로 약 1.2배, 발주 규모는 2,717ft(2003년)에서 4,836ft(2013년)로 약 2배 성장

□ 2014년 기준 국내 어선의 평균 선령은 16년 이상이 35.4%, 카페리와 쾌속선의 경우 평균 선령 20년 이상이 48.7%를 차지하는 등 어선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

o 한편 최근의 환경문제 부각, 카페리 이용객수 증가 등으로 관련 선종의 신규개발 수요도 예상

□ 전남 중소조선산업은 부가가치가 낮고 자산과 매출 규모가 영세한 단순 가공업체의 비중이 높으므로 부품 기자재의 국산화, 과감한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의 레저선박과 여객선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

o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및 어선 현대화사업에 따른 수요를 확보하고 레저선박 클러스터 구축 및 디자인·인테리어 기술 향상 등 레저선박·장비의 경쟁력을 제고

o 또한 호주, 대만 등 레저선박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성공한 해외 기업의 성공사례도 참고